

금강산

나 운영

금강산은 말만 들어도 가보고 싶은 산이다. 백두산이나 한라산, 설악산도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금강산보다는 못하다.

중앙고보 재학 시절 5학년 때에는 만주로, 4학년 때에는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 나도 금강산에 가본 일이 있는데, 내금강이나 외금강도 좋지만 해금강은 참으로 절경이었다. 그중 「비로봉」이라는 제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갔었다고 하면 곧이들을 사람이 없겠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등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산을 타는 데는 좀 자신이 있다. 산은 오를 때가 더 힘이 드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내려갈 때가 더 힘이 든다. 또 아무리 다리가 아프더라도 앉아서 쉬어서는 안 된다. 그저 선 채로 쉬어야만 한다. 주저앉아버리면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더 피곤을 느끼게 되는 법이다.

나는 남에게 지기 싫은 성미여서 묵묵히, 그러나 조금도 쉬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일등으로 올라간 것이니 마치 토끼와 내기를 한 거북이 격이라고나 할까….

6·25사변이 일어나 부산으로 피난 갔을 때 문교부에서 『임시 국정교과서』(음악) 편찬을 이승학·박태현·나운영에게 위촉했을 때 나는 「흥부 놀부」, 「어린이 노래」, 「유관순」 등 수많은 동요를 작곡했었다. 그중에 「금강산」이 들어 있었는데 이 노래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불러지는 것은 누구나 금강산을 가보고 싶어 하기 때문인가 보다.

〈'92. 1. 6〉